“고향 잃었지만 꿈은 잃지 않아…한국 배우며 새 꿈 키워요”

광주 고려인마을 ‘우크라 난민’ 한글·한국문화 교육 현장 가보니

난민 자녀 등 21명 한글 수업
피란민 슬픔 딛고 배움 열정
“IT 개발자 꿈 이루고 싶어요”
도움 준 모든 사람들에 감사

루이자(왼쪽)씨와 아들 올렉산군.

지난 15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 자녀들과 고려인들이 한글·한국 문화 수업을 듣고 있다.

“러시아 침공에 고향을 떠나왔어도 저는 꿈을 잃지 않았어요. 얼른 한국 말, 한글 배워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프로그래밍 공부도 열심히 해 보란듯이 IT(정보통신)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산동 고려인마을.

꼭 학교 교실처럼 생긴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에서 한글 수업을 듣던 아들 올렉산(16·Oleksan Vartapetian)군의 당찬 포부를 듣자 어머니 루이자(55·Kulishova Luiza)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최근 고려인마을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자녀와 고려인을 위한 ‘한글 교육’이 한창이다.

이 수업은 본래 한국말이 서툰 고려인들의 한국 적응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만든 수업이지만, 최근 고려인마을에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늘자 학령기 자녀를 위한 ‘한국사회 적응교육’으로 범위를 넓혔다고 한다.

이날도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에는 난민 자녀 7명을 포함한 21명의 학생이 모여 한글 수업을 들었다. 7~16세 초·중·고교생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세종대왕’을 바탕으로 한글과 한국(조선)의 역사를 배웠다. 교사 박 빅토리아(Pak Victoria)씨의 지시에 따라 또렷한 발음으로 ‘세종대왕’을 따라 읽고, 세종대왕 초상화를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글 교육을 시작해 ‘기역’ ‘니은’ ‘디귿’을 읽고 쓰며 기초를 익히고 있다.

슬픈 표정의 얼굴에서 드러나듯 이곳에서 만난 난민들은 저마다 아픈 사연을 안고 광주로 왔다.

루이자씨가 전쟁에 휘말려 피란길에 오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타지키스탄 출신 고려인 3세인 루이자씨는 지난 1991년 소련 분리 독립 여파로 고향에서 내전이 터지자 우크라이나로 피신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니콜라예프에서 행복한 순간도 잠시, 이번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폭격을 피해 폴란드로 피신한 루이자씨 모자는 고려인마을과 인연을 맺었던 쌍둥이 딸의 제안으로 지난 3월 28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루이자씨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폭탄이 떨어지면서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다. 말로 표현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고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잠시 흐느꼈다.

아들 올렉산군 역시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지만 꿈을 이루려는 의지는 대단해보였다. 올렉산군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지만 매일같이 한글·한국 문화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올렉산군은 “힘든 때지만, 광주에서 배움을 계속할 수 있어 다행이다. 한국서 IT 개발자의 꿈을 꼭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고려인마을에서 한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5일 몰도바를 통해 입국한 김 나탈리아(Kim Nataliia)씨의 딸 김 알비나(Kim Albina)양, 아들 김 막심(Kim Maksym)군도 수업을 듣고 싶다고 18일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를 찾아왔다.

나탈리아씨는 “한국에서 잠깐 살던, 정착하던 한글과 한국어는 무조건 배워야 한다”며 “아이들이 한국에 잘 적응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많은 도움을 준 고려인마을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교사도 “대부분 난민들이 자녀와 함께 이곳에 왔다. 난민 자녀들이 엄마 손을 꼭 붙잡고 하나둘씩 한글수업을 들으러 온다”며 “함께 간식 타임도 갖고, 같이 놀이도 하면서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고려인마을은 러시아 침공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난민과 고려인 동포를 위해 항공권과 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2개월 분을 지원하고 있다. 18일까지 난민 117명이 광주 땅을 밟았으며, 493명이 항공권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훔친 차 몰고 목포까지 간 큰 중학생 2명 검거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를 몰고 광주에서 목포까지 80km를 내달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훔친 카니발 차량을 몰고 운전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광주 모 중학교 학생 A(14)군과 B(14)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 아파트 단지를 돌며 후사경(일명 사이드미러)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빈차털이’를 하다, 시동이 걸리자 목포까지 80여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빠져 나가면서 주차된 승용차 1대를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카니발 차주의 도난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한 끝에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만난 사이로, 상습적으로 ‘빈차털이’를 시도하고 훔친 차를 운전하다 수차례 심사원에 들어간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8명 사상’ 여천NCC 대표이사 2명 소환조사

2주간 고강도 특별감사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작업장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입주기업 여천NCC(주) 대표이사 2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신병 처리를 위한 막바지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또한 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이 된 여천NCC(주) 여수공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관련 전문가 등 40여 명을 동시 투입, 2주간의 고강도 특별감사에도 나섰다.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 14일 이 회사 공동 대표 2명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작업장 안전 및 보건 조치 확보 의무 불이행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20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열교환기 시험 도중 일어난 폭발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사고에 앞서 공동 대표이사 2명이 관련 규정에 따른 작업자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광주노동청 판단이다.

광주노동청은 공동 대표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노동청은 또한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 이후 지역에서 일어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1명을 투입,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도 착수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면서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행·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노동청은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전국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인 삼표산업 토석채취현장 붕괴사고와 수사 속도를 맞춰 검찰 송치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상한 야산…알고보니 도박꾼 ‘득시글’

전남경찰, 산도박 일당 43명 적발

전남지역 야산을 돌며 도박판을 벌인 일명 ‘산도박 일당’ 4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남경찰은 지역 야산을 돌며 도박판을 연 혐의(도박 개장)로 A(여·59)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도박판을 연 B(52)씨와 도박에 참여한 41명에 대해선 각각 도박개장,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무안·영암·나주·장흥·강진 등 야산을 돌며 주로 심야 시간을 이용해 도박판을 열었고, 나머지 41명은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적이 드문 야산에 차량을 몰고 들어간 뒤 산을 걸어 올라가 천막과 돗자리 펴고 판을 깐 뒤, 화투패를 이용한 이른바 ‘도리짓고땡’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참가자들은 도박장을 연 A, B씨로부터 전화·문자로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은 뒤, 각자 수백만원 판돈을 들고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도박장 운영자들은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뜯어내 수천만원 이익을 챙겼으며, 입산로 근처에 ‘문지기’를 세워두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하수처리장 업체 선정 ‘뒷돈’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 징역 7년

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 챙기고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빼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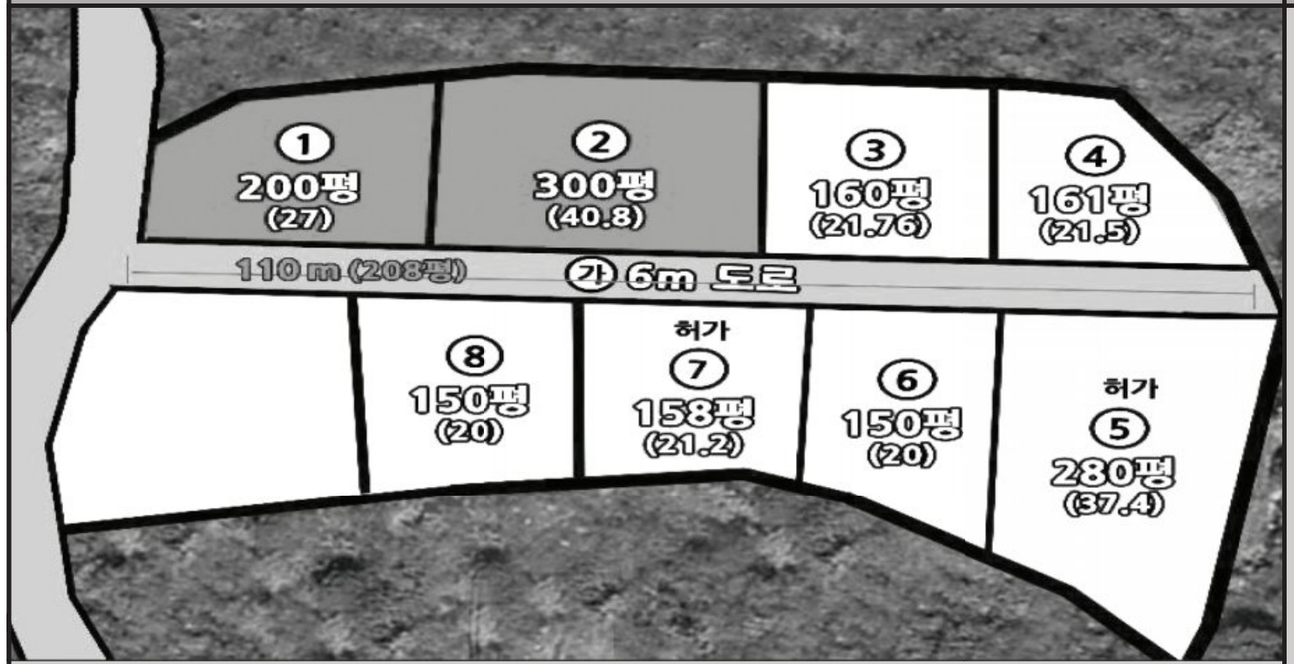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청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전직 지역일간지 주재기자인 B씨는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2000만원과 함께 투기 토지 3필지(6억원 상당)에 대한 몰수형도 함께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C씨는 특가법상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2일께 가우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과 관련해 모 업체 측으로부터 공법 선정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 해 9월 28일 가우도 개발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북구 신안동(다세대빌라)▶감정가 3억9천 -> 1억7천 (3/23)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2억5천 (4/14)
	광산구 덕림동(임야)▶ 감정가 21억 -> 15억 (4/15)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4천 (4/15)
	동구 지산동(임야)▶감정가 19억 -> 13억 (4/22)
	광산구 하남동(주택)▶감정가 7억8천 -> 5억5천 (4/22)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감정가 95억 -> 42억 (4/26)
전남	화순군 도곡면(임야)▶ 감정가 7천 -> 7천(3/3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4/6)
	나주시 빛가람동(주차장)▶ 감정가 17억 -> 12억 (4/11)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38억 (4/11)
시외	경기도 수원시(근린주택)▶감정가 15억 -> 7억4천 (3/31)
	경북 경주시(다가구원룸)▶감정가 15억 -> 5억4천(4/5)

010-6670-9800